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9.(월) 11:00 < 1. 20.(화) 조간 > 배포 2026. 1. 19.(월)

다보스 포럼,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적극 참여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026 다보스포럼 참석(1.19-22)」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4일간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에 참석한다.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다보스 포럼에는 70여개국 정상, 글로벌 기업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 협력 강화,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新 성장동력 발굴 등 글로벌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차세대 글로벌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 및 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는 한편, 머크(Merck)·아마존웹서비스(AWS)·머스크(MAERSK)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인사들도 만나 대 한국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1.22)에 참석하여 WTO 개혁 방향과 제14차 WTO 각료회의('26.3월, 카메룬) 계기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논의를 주도하고, EU·아르헨티나·스위스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 해소,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다보스 계기 글로벌 투자유치와 통상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송승희 (044-203-5626)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5664)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20)
		담당자	사무관	박상희 (044-203-59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26년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

□ 2026 다보스포럼 개요

○ **(일시/장소)** '26.1.19(월)~23(금)/스위스 다보스-클로스터스

○ **(주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

* (5대 글로벌 과제) ❶경쟁 심화 시대의 협력, ❷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❸보다 나은 인재에 대한 투자, ❹혁신의 확장과 책임있는 적용, ❺지구환경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 내 번영 구축

○ **(참석)** 미국, EU, 유럽, 아시아 등 70여개국 정상, 글로벌 기업 리더, 국제기구 수장 및 각료, 글로벌 석학 및 오피니언 리더 3천여명

○ **(출장 목적)** 투자유치활동, 통상현안 협의 등을 위한 글로벌 기업 고위층 면담 및 다보스포럼 활동,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 등

□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안)

○ **(다자)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1.22) 참석, 금년 MC-14 성과 도출방안 논의,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WEF 주요 세션 연사 참석

* IFD 조찬회의 개최(1.22) : IFDA를 WTO 부속서 4로 편입하는 안건의 MC14 의제화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전략 논의 등

○ **(양자) 주요국**(EU·아르헨티나·스위스 등) **각료 면담**, 한국 旣 투자 또는 관심 **글로벌 기업 CEO** 및 **주요 오피니언 리더** 등 면담

* 바이오, 해운, 외국인 투자기업, IT,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 해외 연구기관 수장 등